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❻ 구마라집(鳩摩羅什)



▶ 한줄 요약
동진십육국 시기에 들어서 중국불교에는 사상적으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구마라집이다. 반야학 정립의 초석을 마련하고 중국불교의 사상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상론'으로 중국반야학 초석 다져

동진십육국 시기에 들어서 중국불교에는 사상적으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구마라집(鳩摩羅什, 혹은 鳩摩羅什婆, 344~413)이다. 그의 전기는 〈고승전〉 권2, 〈출삼장기집〉 권14 등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그의 부친 구마염(鳩摩炎)은 본래 천축국(天竺國)의 승려로서 구자국(龜玆國, 현 新疆 疏勒)의 왕이 국사(國師)로 임명하였지만, 왕의 여동생이 그에게 반하자 왕은 그 둘을 강제로 결혼시켰다. 그 여동생은 두 아들을 낳았지만, 오히려 불법에 귀의해 7살의 구마라집과 함께 출가하여 수행하였다. 이후 구마라집은 모친과 서역의 여러 나라를 유행하면서 아비담(阿毘曇) 등의 이른바 '소승'에 통달하였지만, 수리야소마(須利耶蘇摩)로부터 '대승'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옛날에 소승(小乘)을 배운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황금을 알지 못한 채 놋쇠를 가지고 가장 훌륭한 것으로 여긴 것과 같구나."라고 탄식하였고, 이로부터 대승경전들을 널리 구하고, 〈중론(中論)〉, 〈백론(百論)〉, 〈십이문론(十二門論)〉 등을 암송하였다고 한다. 그 후 20세에 다시 구자국으로 돌아와 구족계를 받고, 비마라차(卑摩羅叉)에게 〈십송률(十誦律)〉을 배웠다.

후에 모친은 수행을 위하여 천축국(天竺國)으로 떠나면서 구마라집에게 중국에 가서 법을 펼 것을 권하면서, 그렇지만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자, 구마라집은 "만약 반드시 큰 교화(대승)를 전하여 몽매한 세속을 깨닫게 할 수만 있다면, 비록 끓는 가마솥에서 몸이 삶아지는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한(恨)이 없을 것입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로부터 중국에 대승을 전하고자 발원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후 건원 18년(382) 전진(前秦)의 부견(符堅)이 군사를 일으켜 여광(呂光)으로 하여금 구마라집을 모셔오라고 하였으나, 그 사이에 부견은 요장(姚□)에게 살해당하자 여광은 관외에 나라를 세웠다. 〈고승전〉 등의 전기에서는 여광이 불법을 중시하지 않았던 까닭에 구마라집을 상당히 괴롭힌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후에 요장의 아들 요흥(姚興)이 홍시(弘始) 3년(401)에 다시 군대를 파견하여 구마라집을 장안(長安, 현 西安)으로 모셔왔는데, 여광에게 잡힌 지 17년만이고, 구마라집의 58세의 일이다. 그렇지만 이 기간에 구마라집은 중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사상과 문화에 대하여 상당히 깊이 있게 이해하고, 법을 펼칠 준비를 했다고 추정된다.

장안에 도착한 이후, 후진의 군주 요흥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지만, 요흥은 구마라집의 총명을 계승하는 후손을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10명(혹은 12명)의 부인을 하사하였다. 그 이후 구마라집은 승방(僧房)에 기거하지 않았고, 강설(講說)할 때에도 항상 "비유하면 더러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다. 다만 연꽃만을 취하고 더러운 진흙은 취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구마라집은 홍시 15년(413) 4월에 장안의 대사(大寺)에서 70세로 입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십송율(十誦律)〉을 미처 번역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만약 내가 번역하여 옮긴 것에 잘못이 없다면, 화장한 후에도 내 혀만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입적 후에 소요원(逍遙園)에서 의식에 따라 화장하였는데, 오직 그의 혀만은 재가 되지 않았다고 전한다. 현재 감숙성(甘肅省) 무위현(武威縣)에 '설탑(舌塔)'이 있는데, 바로 구마라집의 훼손되지 않은 혀를 모신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진다.

구마라집은 58세에 중국에 들어와 70세에 입적하기까지 12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가 번역한 경전은 상당히 많다. 〈출삼장기집〉에 따르면, 35부 294권이며, 〈개원석교록〉에는 74부 384권이라고 하지만, 현존하는 것은 39부 3백여 권이다. 무엇보다도 그 이전의 역경(譯經)이 노장(老莊) 등의 역어(譯語)를 사용하거나 현학(玄學)의 사상과 결합시킨 격의(格義)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구마라집의 번역은 정확성과 문체(文體) 등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나 후대에 '신역(新譯)'과 '구역(舊譯)'으로 구분한다. 더욱이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 〈법화경〉, 〈대품반야경〉, 〈소품반야경〉, 〈유마경〉 등은 이후에 여러 차례 재번역이 되었어도 여전히 구마라집의 역본이 유행하고 있다. 또한 구마라집이 번역한 〈중론〉, 〈백론〉, 〈십이문론〉, 〈대지도론(大智度論)〉 등은 이후에 본격적인 중국반야학을 정립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곱 살 때 모친과 함께 출가
57세 중국 입성 70세에 입적
294권 번역 300여 권만 현존
중국불교사상 형성에 큰 공헌


중국 서안 초당사에 있는 구마라집 사리탑.

또한 구마라집에게는 후진의 군주 요흥을 위하여 찬술했다는 〈실상론(實相論)〉이 있고, 자신이 번역한 〈금강경〉을 상세히 설명한 〈금강경주(金剛經注)〉 등의 저술이 있다고 하지만, 전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산 혜원(慧遠)의 질문에 답한 〈구마라집법사대의(鳩摩羅什法師大義)〉가 전해지고, 또한 승조(僧肇)의 이름으로 찬술된 〈주유마힐경(注維摩詰經)〉(大正藏38 所收)에는 구마라집의 주(注)가 실려 있다. 특히 이 〈주유마힐경〉에는 승조, 도생(道生)의 주석도 실려 있어 중국불교의 사상적 토대를 건립한 세 종장(宗匠)의 견해를 비교할 수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구마라집이 수행한 중국불교에 대한 공헌은 몇 권의 책으로 설명해도 모자랄 정도이지만, 가장 중요한 공헌은 바로 반야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반야'는 '앎'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법(諸法)의 자성(自性)이 비어 있음[空]을 여실(如實)하게 아는 것이고, 그에 따라 '지혜'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이른바 제법, 다시 말하여 일체의 현상은 모두 '무명(無明)'으로부터 '연기(緣起, 기대어 일어남)'하여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렇게 연기한 제법은 마땅히 그 '독자적 존재성[自性]'을 지닐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의 현상이 '자성'을 지녔다면 바로 '연기'할 필요가 없이 여여(如如)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도리를 밝히는 것이 바로 아함부의 '십이연기설'인데, 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십이연기법'을 순역(順逆)으로 관(觀)하여 '명(明)'에 도달하면 바로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십이연기'의 최종적인 단계인 '명'의 설명에서 다시 '공'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른바 '십이연기'의 '제일의제(第一義諦)'가 바로 '공'임을 제시한다. 하지만 무시이래(無始以來) 무명으로부터 집기(集起)한 현상계는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잡아함경〉 권10에는 "세간의 집기를 여실하게 정관(正觀)한다면 세간이 없다[無]고 말할 수 없고, 세간의 멸을 여실하게 안다면 세간이 존재한다[有]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여 바로 그 중도(中道)에서 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야'의 '공관'은 '제법성공(諸法性空)'의 '진제(眞諦)[第一義諦]'와 '연기'된 '세속제(世俗諦)'로 설정되고, 서로 끊임없이 상즉(相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제법의 성품[性]인 '공(空)'은 바로 제법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인 담지체(擔持體, 혹은 '本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하나의 '실체' 혹은 '상(相)'을 가지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반야에서 설하는 '공관'과 정면으로 모순되게 된다. 이것은 대승불교가 갖는 하나의 논리적 딜레마인데, '반야'는 그를 끊임없는 부정(否定)의 논리로 해결하고 있다. 제법의 성립근거를 '유(有)·무(無)·역유역무(亦有亦無)·비유비무(非有非無)'의 '사구(四句)'로 '무한부정[百非]', 즉 '사구백비(四句百非)'로 진행시켜 반야법의 성립 근거는 인간이 가진 논리형식으로는 결코 논증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자체가 다만 '희론(戱論)'일 뿐이므로 '지식(止息)'해야 하고, 반야법은 '부사의(不思議)'하게 성립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런데 구마라집은 서역의 반야학과는 다르게 반야법의 성립근거로서 '실상(實相)'을 제시하고 있다. 제법의 성립 근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담지체로서 '실상'을 제시한 것이고, 그러한 '실상'이 집착의 대상인 '상(相)'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상(無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주유마힐경〉에서 구마라집은 "만약 생멸(生滅)이 없다면 곧 갈 곳도 없으며, 갈 곳이 없다면 바로 실상(實相)이다.", "소승에서는 사제(四諦)를 설하고, 대승에서는 일제(一諦)를 설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諦)는 일제(一諦)이고, 일제는 '실상'이다."라고 주석하고, 〈대지도론〉에서도 "항상 '제법실상'은 '무상(無相)'하다고 관하라.", "'실상'이란 불생불멸하는 열반상(涅槃相)과 같으며, 모든 제법의 모습 또한 이와 같으니, 이를 '제법실상'이라고 한다."와 같은 문구가 보인다. 이에 따라 이후 중국불교에서는 '실상무상'이라는 용어가 관용구처럼 쓰이게 된다. 실제로 반야법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요흥에게 헌상했다는 〈실상론〉은 비록 아쉽게도 현존하지는 않지만, 이를 논증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구마라집의 '실상무상'은 서역의 '희론의 지식'과는 다르게 묘한 사상적 탄력성을 지닌다. 특히 이러한 '실상론'에 입각하면 앞에서 언급한 '사구백비'는 수정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구마라집이 번역한 〈중론〉, 〈십이문론〉, 〈백론〉을 바탕으로 설립된 삼론종에서는 '이사구(離四句), 절백비(絶百非)'를 제창하고 있으며, 후대의 조사선(祖師禪)에서 또한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반야학의 실상론은 이후 중국불교의 사상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구마라집의 제자들은 3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이들은 바로 승조(僧肇), 승예(僧叡), 도융(道融), 담영(曇影), 도생(道生) 등이다. 그러나 중국불교사상사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이는 바로 승조와 도생 두 고승이라고 하겠다.

〈고승전〉에는 구마라집의 "마음의 산(山)에서 밝은 덕을 길러, 그 좋은 향은 1만 유연(由延, 由旬)으로 퍼지고, 오동나무에 외로이 깃든 슬픈 난새, 청아한 울음소리 구천(九天)을 꿰뚫네."라는 게송을 싣고 있다. 이로부터 구마라집의 불법을 체득한 경지에 대한 자부심과 중국에서 함께 법을 논할 수 있는 도반이 없는 외로움, 본의 아닌 파계에 대한 감상 등의 다양한 뉘앙스를 엿볼 수 있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